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Forum) 참석
- 해양모빌리티 강국을 향한 산·학·연·관의 협력 강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2일(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전기선박엑스포 포럼’에 참석해 친환경 전기선박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방향에 대해 산·학·연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기술로 건조하여 시험운항 중인 순수 전기추진 차도선* 전시 부스(Booth)를 방문한 강 장관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기추진선박 활성화가 연안 여객·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수산분야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여객선의 한 종류로, 여객과 동시에 개방된 적재 구역에 차량 등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선박

강 장관은 포럼 축사를 통해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나가자.”라고 강조하며,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선박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보급,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남창섭 (044-200-5830)
	해사산업기술과	담당자	사무관	박인성 (044-200-5838)